

2020년 4월 9일 공보 2020-4-13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0년 4월 9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박종우, 차장 권효성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세계경제지표

		19.2/4	3/4	4/4	20.1/4	19.12월	20.1월	2월	3월
미국	GDP성장률(전기비연율, %) ¹⁾	2.0	2.1	2.1	..	-	-	-	-
	소매판매(전기비, %) ¹⁾	1.8	1.4	0.4	..	0.0	0.6	-0.5	..
	산업생산(전기비, %) ¹⁾	-0.6	0.3	0.1	..	-0.4	-0.5	0.6	..
	수출(전기비, %) ¹⁾	-1.1	-0.2	-0.6	..	1.0	-1.0	0.5	..
	ISM제조업(기준=50) ²⁾	52.4	49.4	48.1	50.0	47.8	50.9	50.1	49.1
	실업률(%) ¹⁾²⁾	3.6	3.6	3.5	3.8	3.5	3.6	3.5	4.4
	비농기취업자수증가(만명) ¹⁾	42.6	55.1	62.8	37.3	18.4	21.4	27.5	-70.1
유로	GDP성장률(전기비, %) ¹⁾	0.1	0.3	0.1	..	-	-	-	-
	소매판매(전기비, %) ¹⁾	0.6	0.6	0.3	..	-0.9	0.7	0.9	..
	산업생산(전기비, %) ¹⁾	-0.8	-0.6	-1.2	..	-1.8	2.3
	수출(전기비, %) ¹⁾	-0.8	0.4	1.3	..	0.9	0.1
	제조업PMI(기준=50) ²⁾	47.7	46.4	46.4	47.2	46.3	47.9	49.2	44.5
	경기체감지수(기준=100) ²⁾	103.8	102.0	100.6	100.2	100.9	102.6	103.4	94.5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6.2	6.0	6.0	..	-	-	-	-
	수출(전년동기비, %)	-1.0	-0.3	2.0	..	8.1	└-17.2┘
	소매판매(전년동기비, %)	8.5	7.6	7.7	..	8.0	└-20.5┘
	고정투자(전년동기비, %) ³⁾	5.8	5.4	5.4	..	5.4	└-24.5┘
	제조업PMI(기준=50) ²⁾	49.6	49.7	49.9	45.9	50.2	50.0	35.7	52.0
브라질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0.8	-1.2	-0.5	..	-1.2	-0.9	-0.4	..
러시아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2.0	3.1	1.8		1.7	1.1	3.3	..
글로벌	교역량증가율(전년동기비, %) ⁴⁾	-0.3	-0.7	-1.1	..	-0.3	-1.5

주: 1) 계절조정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누계 기준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경기침체 우려,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제금융지표¹⁾

		19.11월	12월	20.1월	2월	3월	4.8일
전세계 MSCI		546.7	565.2	558.6	512.8	442.4	462.3
- 선진국		2,292.3	2,358.5	2,342.4	2,141.1	1,852.7	1,940.1
- 신흥시장국 (중국 ²⁾)		1,040.1	1,114.7	1,062.3	1,005.5	848.6	873.9
VIX		2,872.0	3,050.1	2,976.5	2,880.3	2,750.3	2,815.4
환율	달러인덱스	98.3	96.4	97.4	98.1	99.0	100.1
	중국 ³⁾	7.02	6.96	6.91	6.99	7.10	7.06
	브라질 ³⁾	4.24	4.02	4.28	4.47	5.21	5.12
	인도네시아 ³⁾	14,119	13,850	13,746	14,377	16,413	16,250
국채금리 ^{4)(%)}	미국	1.78	1.92	1.51	1.15	0.67	0.77
	독일	-0.36	-0.19	-0.43	-0.61	-0.47	-0.31
CDS프리미엄(bp)	브라질	125.2	98.8	104.3	134.0	272.1	297.7
	인도네시아	73.3	62.2	67.9	101.7	222.3	234.9
	한국	27.3	21.9	27.6	35.4	37.8	34.6

주: 1) 기말 기준
4) 10년물 기준

2)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

3) 미달러화 대비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각국의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가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으며 수출도 소폭 감소하였다. 고용 상황은 2월까지는 취업자수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일시휴직자는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증가하였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큰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16	2017	2018	2019	192/4	3/4	4/4	201/4	19.12월	20.1월	2월	3월
GDP 성장률 ¹⁾	2.9	3.2	2.7	2.0	1.0	0.4	1.3	..	-	-	-	-
(민간소비)	2.6	2.8	2.8	1.9	0.7	0.2	0.9	..	-	-	-	-
(설비투자)	2.6	16.5	-2.4	-7.7	3.2	0.6	3.3	..	-	-	-	-
(건설투자)	10.0	7.3	-4.3	-3.1	1.4	-6.0	7.0	..	-	-	-	-
소매판매액지수 ²⁾	3.9	1.9	4.3	2.4	0.5	0.3	1.9	..	0.6	-3.1	-6.0	..
설비투자지수 ²⁾	1.8	14.4	-3.6	-6.2	3.2	1.0	4.3	..	7.9	-6.9	-4.8	..
건설기성액 ²⁾	15.8	11.4	-4.2	-6.9	-1.8	-3.5	1.0	..	6.5	1.9	-3.4	..
수출(통관) ³⁾	-5.9	15.8	5.4	-10.4	-8.7	-12.3	-11.8	-1.0	-5.3	-6.5	4.3	-0.2
- 일평균 ³⁾	-5.9	17.3	5.2	-11.2	-12.0	-14.2	-11.8	-4.7	-7.3	4.4	-11.9	-6.4
제조업생산지수 ²⁾	2.3	2.3	1.3	0.1	1.5	2.0	1.3	..	3.8	-1.3	-4.1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2.6	1.9	2.3	1.4	0.3	0.6	0.7	..	0.2	0.5	-3.5	..
소비자심리지수 ⁴⁾	98.9	105.3	103.3	98.3	99.1	95.1	100.0	93.2	100.5	104.2	96.9	78.4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70	80	75	72	75	71	73	66	74	76	65	56
취업자수 증감 ⁶⁾	23.1	31.6	9.7	30.1	23.7	36.6	42.2	..	51.6	56.8	49.2	..
(제조업)	-2.1	-1.8	-5.6	-8.1	-6.4	-7.6	-4.1	..	-1.5	0.8	3.4	..
고용률(원계열)	60.6	60.8	60.7	60.9	61.3	61.5	61.4	..	60.8	60.0	60.0	..
실업률(원계열)	3.7	3.7	3.8	3.8	4.1	3.3	3.1	..	3.4	4.1	4.1	..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BSI 기준

6)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전년동기비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1% 수준으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에서 소폭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 확대, 수요측 압력 약화 등으로 낮아져 지난 2월 전망치(각각 1.0% 및 0.7%)를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

	19.2/4	3/4	4/4	20.1/4	19.12월	20.1월	2월	(전년동기비, %) 3월
소비자물가 ¹⁾	0.7 (0.4)	0.0 (-0.1)	0.3 (0.3)	1.2 (0.5)	0.7 (0.2)	1.5 (0.6)	1.1 (0.0)	1.0 (-0.2)
▪ 농축수산물 (농산물)	1.2 1.6	-5.4 -8.7	-2.5 -5.8	2.0 -0.5	-0.8 -4.0	2.5 1.0	0.3 -2.6	3.2 0.1
▪ 공업제품 (석유류)	0.0 -3.5	-0.2 -6.0	0.2 -3.1	2.0 10.5	1.1 3.8	2.3 12.4	2.2 12.5	1.3 6.6
▪ 전기·수도·가스 (석유류 제외)	0.6	0.8	0.7	0.8	0.7	0.9	0.8	0.5
▪ 서비스	1.3	1.9	1.5	1.5	1.5	1.5	1.6	1.6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0.6	0.7	0.6	0.6	0.6	0.8	0.5	0.4
▪ 농산물·석유류 제외	0.9	0.8	0.7	0.8	0.7	0.9	0.6	0.7
기대인플레이션율 ²⁾	2.1	2.0	1.7	1.7	1.7	1.8	1.7	1.7

주: 1) ()내는 전기비

2)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영향받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큰 폭 상승하였다가 한·미 통화스왑 체결 이후 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1%대 초반에서 등락하였다.

국내금융지표

	19.11월	12월	20.1월	2월	3월	4.8일
통안증권금리(91일물, %) ¹⁾²⁾	1.33	1.33	1.25	1.12	0.90	0.75
국고채금리(3년물, %) ¹⁾²⁾	1.39	1.36	1.30	1.10	1.07	1.02
국고채금리(10년물, %) ¹⁾²⁾	1.63	1.68	1.56	1.33	1.55	1.51
KOSPI ¹⁾	2,088	2,198	2,119	1,987	1,755	1,807
원/달러 환율 ¹⁾	1,181	1,156	1,192	1,214	1,217	1,221
(전월말대비 변동률, %)	1.53	-2.10	3.06	1.84	0.30	0.29

주: 1) 기말 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3월 중순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

	19.2/4	3/4	4/4	20.1/4	19.12월	20.1월	2월	3월
은행 가계대출 증감(조원) ¹⁾	14.9	18.0	21.3	22.6	7.2	3.7	9.3	9.6
▪ 주택담보대출 ²⁾³⁾	10.6	12.1	15.1	18.4	5.6	4.3	7.8	6.3
▪ 기타대출 ⁴⁾	4.4	5.9	6.2	4.2	1.6	-0.6	1.5	3.3
주택 매매가격(%) ⁵⁾	-0.5	-0.1	0.7	1.2	0.4	0.3	0.3	0.5
▪ 수도권 ⁶⁾	-0.5	0.2	1.3	1.8	0.6	0.4	0.5	0.9
(서울)	-0.3	0.4	1.8	0.6	0.9	0.3	0.1	0.1
▪ 광역시 ⁷⁾	-0.3	0.0	0.9	1.0	0.5	0.4	0.3	0.3
▪ 지방 ⁸⁾	-0.5	-0.4	0.2	0.5	0.2	0.2	0.2	0.2

주: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3) 주택관련대출 포함

4)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5) 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감정원 지수 기준

6) 서울, 인천, 경기 7)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8)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